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품새경기의 방향 탐색

윤수한(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김용은*(전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품새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품새 경기의 본질적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여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품새경기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태권도 품새 경기의 주체적 행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안게임 이후 태권도 품새 종목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경쟁 종목인 우슈와 가라테와의 경쟁에서 변별력을 갖춰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추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의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품새 경기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관련 기관은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심판의 평가방식과 규정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셋째,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심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우수선수 양성과 시장 형성을 위해 전국체육대회의 종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교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태권도, 품새, 새 품새, 올림픽, 정식종목

이 연구는 윤수한의 성공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phdyong@gmail.com

I. 서론

태권도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9개국, 수련인구 약 8,000만 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이며, 국내외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5개의 대륙 연맹,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대표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서 성장한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세계화를 이뤄냄으로써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범식, 곽택용, 2011). 특히,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2020. 2. 19.)에 등록된 품, 단 소지자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국내외 약 1,061만 명이며, 국내 등록도장은 9,976개로써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양적·질적 성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권도의 세계화는 개인의 정신 수양에 대한 요구와 함께 무도적 가치가 중시되는 품새 수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품새 수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품새 경기는 세계인의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으며, 겨루기 종목과 함께 태권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용주, 최공집, 전민우, 2016). 품새 경기는 1992년 12월 9일 제1회 태권도한마당 대회를 시작으로 무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권도 종목으로 발전하였으며, 2006년 품새 경기 규정 제정을 통해 경기종목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품새에 대한 각 단체와 지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어 품새를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품새 선수들도 증가하였으며(정재환, 이재환, 김순정, 2014), 국내외 품새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초·중·고·대학·중장년 선수들 간 치열한 경쟁과 함께 점차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정재환, 박찬우, 2016). 이를 통해 태권도 품새는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세계품새선수권대회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정식종목임과 동시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새가 스포츠 종목으로서 대중화 및 보편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1회 태권도한마당 대회에서 품새가 경기화 된 이후, 품새 경기의 심사기준에 대한 객관성 논란이 대두되었고(김기홍, 2009; 이송학, 박종범, 2007), 공인품새의 지루함과 단순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박인준, 김현민, 마효예, 조성균, 2019), 기술의 난이도 측면에서 구성의 단순화로 인하여 심판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하였다. 이는 품새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의 경기

기술이 평준화되어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진영, 안근아, 2017). 또한, 품새 경기 승부조작(고석승, 2014. 10. 30.; 손현규, 2016. 8. 22.)과 심판의 편파 판정(이승철, 2015. 9. 15.)문제는 품새 경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품새가 지니는 고유적 가치가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내외적으로 대두되자 품새 경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5년 대한태권도협회는 품새 경기에 창작 동작으로 구성된 자유품새를 도입하였으며, 2016년 아시아태권도연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품새 세계화 사업’을 지원받아 새로운 경기용 품새(이하 새 품새)를 개발하였다. 이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하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품새 경기에 새 품새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 단순한 경기규칙의 문제를 기술표현의 다양성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루한 태권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이용균, 2018. 8. 20.; 이원만, 2018. 8. 20.; 조현용, 2018. 8. 20.). 이를 통해 4개 대륙연맹에서 품새 종목을 경기종목으로 채택하여 세계화를 통한 올림픽 종목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품새 경기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올림픽 정식종목화에도 기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안진영, 안근아, 2016). 이는 향후 올림픽에도 채택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작다고 평가할 수 없다(정병기, 2019). 따라서 품새 경기의 올림픽 정식종목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균형적인 발전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방증하듯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은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점인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루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정용원, 이재봉, 2019). 특히, 2014년 12월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Olympic Agenda 2020’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고 통과하였다.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혁안에 따라, 기존 25개 핵심종목과 3개 추가종목으로 구성된 28개의 올림픽 정식종목 중 세부종목이 300개에서 310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올림픽 개최국의 지위를 격상시켜 1개 이상의 세부종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2020년 도쿄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가라테에 대한 IOC의 평가에 따라 태권도의 핵심적 지위가 2024년 이후 올림픽 종목유지의 어려움과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태권도 품새 종목의 세계화 및 올림픽 종목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올림픽 정식종목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하여 겨루기와 품새의 동반

성장을 통한 정식종목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행되어온 태권도 품새 경기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경기방식과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정용원과 이재봉(2019)은 품새 경기의 경기기술 및 규칙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안진영과 안근아(2016)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품새 경기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경기방식과 시설에 대한 개선과 판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인준, 김현민, 마효예 및 조성균(2019)은 2018 아시안게임 품새 경기에 대한 언론보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이 겨루기 종목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품새의 경기화를 위한 경기규칙과 판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다루어왔다. 품새 경기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서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접근은 미진하였다. 특히, 과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가 탈락하고 우슈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사례와 2020년 도쿄올림픽 25개 핵심종목 중 하나인 가라테의 경우, 겨루기의 일종인 ‘쿠미테’와 품새와 유사한 ‘가타’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품새 경기의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유지와 향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변화된 품새 경기의 위상과 가치를 알아보고 국내외 태권도 기관의 역할을 탐색해봄으로써 품새 경기의 세계화를 위한 학문적 실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품새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품새 경기의 본질적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여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품새경기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시안게임 이후 품새 경기에 대한 위상과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 둘째, 품새 경기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태권도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셋째,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 태권도 품새 경기의 변화된 위상과 인식을 살펴보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세계화를 위해 추진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태권도 품새 경기의 주체적 행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 탐구이며, 현상의 경계와 맥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다(Yin, 2018). 즉, 2014년 IOC의 올림픽 정책 변화로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유지에 대한 위기상황에서 품새의 경기화와 세계화를 통해 태권도 종목의 핵심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성과 중 하나인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 태권도 품새 종목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는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품새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올림픽 종목화를 위한 방향을 탐색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례이다.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준거 지향적 선택방법 중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은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써 사례 수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찾는 방법이다(Goetz & LeCompte, 1984). 이러한 방법을 통해 태권도 품새 종목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과 품새의 경기화, 품새 개발 등 품새의 발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경험을 갖춘 행정가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품새 종목 지도자와 선수, 태권도 관련 기관의 품새 관계자, 그리고 태권도 전문가자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요청으로 성명은 가명으로, 연령은 10단위의 연령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성명	연령대	소속 및 직책
A	20대	2018 아시안게임 품새 국가대표 선수
B	30대	2018 아시안게임 품새 국가대표 지도자
C	50대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관계자
D	60대	아시아태권도연맹 품새 관계자
E	50대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관계자
F	40대	태권도 전문기자

2. 자료수집

1) 문헌조사

문헌은 직접적인 관찰과 면담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김영천, 2016), 문헌조사는 자료수집 과정의 일차적 매개체로써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전문성에 의해 문서형태의 자료가 수집된다. 이를 토대로 태권도 품새 경기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스포츠대회와 품새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술 및 연구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언론보도 자료, 각종 문헌 등을 수집하였다. 이는 연구의 방향과 목적 기술, 그리고 심층적인 면담을 위해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면담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적합한 과정에 의해 심층면담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문헌조사에 의한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1차 심층면담 프로토콜이 작성되었다. 이후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및 관련 전공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2차 심층면담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최종 심층면담 프로토콜을 구성하기 위해 2명의 연구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화와 구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특히, 사전에 e-mail을 통해 면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층면담 프로토콜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프로토콜 및 내용

구 성	내 용
품새 경기 인식	2018 아시안게임 품새 경기 인식 및 평가, 선수들의 경기력, 종목 경쟁력
가능성 수준	아시안게임 이후 올림픽 종목화 가능성
관련 기관 역할	경기단체로서 역할, 품새 경기의 내외부적 문제
올림픽 종목화	올림픽 종목화를 위한 노력과 개선, 경기의 공정성, 대중성 확보

면담 방식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형식의 하나인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 구조화 면담과 비구조화 면접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백옥현, 2006).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추가 및 수정하여 유연하게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면담내용을 순차적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모든 면담은 면대면 방식의 개별 면담으로 각각 2~3회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선정한 장소와 시간대에 회당 약 90분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 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특징적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주제 요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감소시켜 분석된 범주를 규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이다(Dey, 1993). 따라서 최종 수집된 자료에 대해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과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던 자료를 연구자 노트북에 전사한 후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한 후 자주 묘사되는 단어나 어휘를 코드화(coding)하여 주제적

용어를 부여하였다. 셋째,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을 범주화하여 주제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의미를 생성하였다.

4. 연구 타당성 및 윤리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의 네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반복적인 확인과 검토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함으로써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해당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공분야의 전문가들과 월 2회, 총 6회의 자체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결과 내용에 대한 자문과 논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적합성과 감사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충실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을 지양하고자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품새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주체적 행위자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화하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과 수집과정이 병행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총 22개의 개념과 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3개의 범주가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대중화와 엘리트화의 가능성		
대회의 규모와 가치	아시안게임 이후 가치 향상	
전반적 발전에 큰 영향		
태권도의 변별성	품새 종목의 경쟁력 강화	품새 경기의 위상과 인식변화
기타 종목과의 경쟁		
품새에 대한 높은 관심		
세계화 도전 가능성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	
품새 종목에 대한 문제 개선		
단체 간의 협력과 의지		
협업과 순차적 업무처리 중요	기관 간의 협력	
상위기관의 역할 수행		태권도 관련 기관의 역할
경기방식과 품새 규정 혼란		
자유품새 규정 개선	경기 평가방식과 규정의 보완	
공인품새 경기규칙 변화		
국제심판 대상 교육		
강한 징계제도 도입	심판의 역량 강화	
심판 자질과 수준 향상		
실업팀의 시장 활성화	전국체육대회의 종목 채택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는 길
엘리트 선수층 확대		
IOC 설득을 위한 행동 실천		
기관들의 행정 및 정치력 강화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저명인사 섭외 및 활동		

1. 품새 경기의 위상과 인식변화

태권도 품새 경기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을 통해 변화된 위상과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품새 경기의 가치가 향상되고 타 종목 간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아시안게임 이후 가치 향상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순조롭게 진행된 태권도 품새 경기에 대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경험적 측면에 따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 대한 가치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추후 태권도 품새 경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품새 경기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태권도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을 넘어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중의 관점에서 품새라는 종목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 가능하다는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에 품새가 들어감으로써 품새 저변의 확대와 앞으로 품새가 엘리트 체육으로 나가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올림픽 다음으로 우리 아시아에서는 멀티게임으로서 아시안게임이 두 번째로 손을 꼽는 멀티 대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시안게임에 품새 종목이 들어갔다는 거 자체로도 품새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줄 수 있고. (연구참여자, C)

이번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품새가 채택됨으로써 품새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품새가 첫 선을 보이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이러한 목표설정과 가능성은 품새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저변확대와 수련인구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새 경기의 사회현상을 분석한 연구(박인준, 김현민, 마효예, 조성균, 2019)에서도 아시안게임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부분은 대중에게 태권도가 발전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태권도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발전의 초석을 이루었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거나 겨루기 종목 및 메달 수를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품새 종목의 경쟁력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품새 종목만의 변별력을 갖춰 경쟁 종목인 우슈와 가라테와의 경쟁을 통해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작금의 중국과 일본은 전통 무술인 우슈와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슈와 가라테 종목이 지닌 국제 스포츠 외교적 역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대중에게 보일 수 있는 태권도 품새 기술을 개발한 후 접목하여 시도되어야 변별력과 경쟁력을 갖춘 종목으로 거듭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태권도 품새 경기가 타 종목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상호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타 무술에 비해 태권도만의 면모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더욱이 태권도만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품새로 거듭되어 변별력 있는 경기로 발전할 수 있다면 더욱 인기 있는 태권도 품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저희 경쟁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슈나 가라테는 투로와 가타가 정식종목이 되어있는데, 이렇게라도 같이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연구참여자, B)

이와 같이 품새 종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국현, 김두한 및 김하영(2014)은 IOC의 정책에 부응하고 태권도 품새를 통한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IOC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들은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점인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루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정용원, 이재봉, 2019). 이를 위해 태권도가 지닌 특성을 유사종목과 비교하고 강조하여 실효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이재봉, 2018). 이러한 노력은 태권도 품새 경기에도 요구되는 부분이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3)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가능성

태권도 품새 경기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

에서 개최되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권도 품새 경기는 활성화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됨으로써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정재환, 박찬우, 2016).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아시안게임을 통한 태권도 품새의 높은 관심과 함께 추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태권도 품새 경기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스포츠 종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해도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넘어서 다른 대륙별 게임, 그리고 올림픽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 (연구참여자, C)

앞으로 올림픽이나 전 세계 속에서 품새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메달 획득에 따른 국가 위상의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와 함께 올림픽 무대에서 4번째로 공식 언어의 반열에 오르게 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최광근, 장권, 2016). 하지만 과거의 많은 종목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정착하지 못한 원인으로 올림픽 개최국의 요구로 인하여 자국의 유리한 종목들이 도입과 퇴출을 반복한 점을 들 수 있다(김현수, 김동규, 2013). 이는 개최국의 스포츠가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었던 과정이 관례처럼 시행되어 왔고 타 종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하게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이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종목선정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채택과 배제에 대한 경험과 2018년 아시안게임의 품새 경기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당위성과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태권도 관련 기관의 역할

태권도 품새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태권도 관련 기관인 세계태권도연맹(WT)과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대한태권도협회(KTA)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행정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력에 대한 채점방식 및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기관 간의 협력

연구참여자들은 품새 경기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해당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수와 김동규(2013)는 올림픽 정식종목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살펴본 연구에서 의사결정기구인 IOC가 올림픽 정식종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올림픽현장의 이상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스포츠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행정 조직들의 바람직한 행정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시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바탕으로 태권도 품새 경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아래 행정 및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유관단체들의 협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아연맹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넣기 위해 많은 세월을 공 들여왔습니다. 이처럼 세계연맹에서도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연구참여자, B)

지금부터라도 여러 단체들은 다 같이 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실질적인 바탕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위에서 WT나 ATU나 KTA에서 올림픽에 빨리 넣자고 한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없는 겁니다. (연구참여자, E)

앞서 기술한 태권도 관련 기관인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시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국기원과 산하연구기관인 태권도연구소가 협력하여 태권도 품새 경기 운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 민간기업과의 정보 및 지식 교류를 확대하여 태권도 품새 경기의 과학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한편, 북한 태권도로 불리는 ITF 중심의 태권도와 세계태권도연맹 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이 요구되는 대상이지

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두 연맹으로 구분된 채 발전되어 왔으며, 경기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이러한 점이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상징화된 이미지가 IOC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될 여지가 있다.

2) 경기 평가방식과 규정의 보완

태권도 종목 중에서 겨루기의 경우, 경기규칙을 통한 종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 및 선수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지위를 지니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정용원, 2018).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품새 경기에 대한 평가방식과 규정에 대한 통일성을 요구하였다. 특히, 태권도 관련 기관은 새 품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태권도 품새 경기의 규정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던 선수로서 아쉬웠던 점은 각 기관의 통일 되지 않은 경기방식과 품새 규정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연구참여자, A)

새 품새를 제외하고 세계연맹에서 경기 룰을 관장 하니까 지금 미흡한 부분들인 자유품새 규정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B)

자유 품새는 아크로바틱 이라고 하는 비교적인 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 품새는 경기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승진과 전정우(2017)는 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항목 정립과 난이도에 따른 차등점수 배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용원(2018)은 태권도 품새 경기 개선의 중요도 중에서 경기 규칙 보완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경기 외적 콘텐츠 보완, 경기 윤리 강화, 경기 내적 콘텐츠 보완, 경기 유형 보완 순으로 나타났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새품새와 자유품새를 실시하여 경기규칙의 단순화 문제를 기술 표현능력의 다양화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정용원, 이재봉, 2019). 따라서 태권도 품새 경기가 무예 스포츠 경기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하여 경기 평가방식과 규정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는 길

태권도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 결과,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품새 시장의 저변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스포츠 외교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1) 심판의 역량 강화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은 경기의 핵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판단력을 바탕으로 외압이나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양심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이수판, 2008).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새 경기가 되기 위하여 심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품새 동작의 정확성, 표현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전문 심판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조건 양적인 성장보다 기존의 있는 국제심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질을 좀 향상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C)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서 주관적이지만 정말 객관적인 심판을 양성해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심판들은 가차 없이 강한 징계제도를 통해. (연구참여자, D)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심판교육을 통해 심판 자질과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채점방식과 수준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F)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경우 과거 IOC가 세계태권도연맹으로 권고한 경기방식과 불합리한 심판판정, 흥미와 박진감 부족, 미디어 노출의 부재 등의 내용을 통해 올림픽 정식종목 탈락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에 세계태권도연맹은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호구와 비디오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림픽에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판정시비와 관련된 문제가 감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보장하는 기본은 완성도 높은 경기규칙의 마련이며(임석원, 2017), 심판의 경기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시된다(임석원, 조문기, 2016). 이와 마찬가지로 태권도 품새 경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전국체육대회의 종목 채택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 품새 경기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대중의 관심과 시장 형성 및 우수선수 양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태권도 품새 경기가 전국체육대회 종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선수들과 팀을 비롯한 각 지역의 실업팀들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렇듯 정재환과 박찬우(2016)는 태권도 품새 경기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선수들의 대학 졸업 후 진로의 확대, 훈련 및 생활 여건의 향상, 각 지역 실업팀의 발전 및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국체전에 들어가야 실업팀의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업팀의 시장이 활발해져 좋은 선수를 데려오다 보면 그 시 국회의원들이 시를 홍보하려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전국체전에 들어가면 그만큼 엘리트 선수층이 더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특히 남자선수들은 군 면제라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에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E)

전국체육대회에 품새 종목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품새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올림픽 정식종목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품새 동호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 F)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국현, 김두한 및 김하영(2014)의 연구에서도 품새 경기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나 친밀감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품새 경기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에도 채택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정재환과 박찬우(2016)는 품새 경기의 전국체육대회 종목 미채택의 원인으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협회의 방관과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으며,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협회는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태권도 품새 경기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3) 스포츠 외교력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외교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계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계 속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스포츠외교를 위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스포츠외교의 부재는 중대한 사안이며, 한국 스포츠계 전체를 위하여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김운용, 2012. 8. 27.). 또한, 김민선과 김영환(2010)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외교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분야의 고위관계자보다 실무에 치중할 수 있는 저변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IOC위원들에게 달린 문제이니깐 그 사람들이 우리 태권도 품새 경기를 좋게 봐줘야지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관련 기관들이나 정부가 나서서 IOC를 설득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참여자, C)

경기종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태권도 관련 기관들의 행정력이나 정치력 등을 키워서 다른 상위기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들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섭외해서 활동을 시킨다던지. (연구참여자, E)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IOC위원 사퇴 의사 이후 명예위원으로 바뀌면서 유승민 위원이 유일하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반면, 중국은 유 부위원장을 포함해 리링웨이에 이어 2018년 선수위원으로 선정된 장홍까지 3명의 IOC위원이 활동하고 있다(최대열, 2018. 8. 20). IOC 정원은 총 115명으로 개인 자격 70명, 국제경기연맹 자격 15명,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 15명, 선수위원자격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포함해 97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이러한 IOC위원은 직접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 위원들이 행사하는 표에 따라 올림픽 정식종목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IOC위원과의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정국현, 김두한, 김하영, 2014). 이에 해당 경기단체

들은 올림픽에 편입 또는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현수, 김동규, 2013). 일례로 과거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의 IOC위원과 GAISF회장, 그리고 IOC 집행위원으로의 피선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의 가능성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최광근, 장권, 2016). 이처럼 IOC위원은 국제 스포츠외교의 최정점에 위치하는 자리로서 사회적 위상이나 전 세계 스포츠 무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올림픽 프로그램 위원회의 ‘종목 및 세부종목의 평가기준’에 의한 IOC 집행위원회의 검토와 총회의 표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총회의 재량에 의해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권도 품새 종목은 올림픽 종목과 관련된 IOC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과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된 IOC위원들과의 관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품새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품새 경기의 본질적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여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태권도 품새 경기의 변화된 위상과 인식을 살펴보고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세계화를 위해 추진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시안게임 이후 태권도 품새 종목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품새 종목이 경쟁 종목인 우슈와 가라테와의 경쟁에서 품새 종목만의 변별력을 갖춰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상호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태권도 품새의 높은 관심과 함께 추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품새 경기의 세계화를 위해 태권도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기 평가방식과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태권도 품새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품새 종목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심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품새 동작의 정확성, 표현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전문 심판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중의 관심과 시장 형성 및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 품새 경기가 전국체육대회 종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선수들과 팀을 비롯한 각 지역의 실업팀들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외교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계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태권도 품새 경기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을 통해 위상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아시안게임을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경험은 과거의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정에서 채택과 배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태권도 관련 기관은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행정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적·외적 자원의 교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경험하였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력 평가방식과 규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심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판정시비를 비롯한 운영방식과 흥미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타 종목들의 올림픽 종목 퇴출사유를 같은 맥락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 품새 경기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심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어 선수와 지도자, 팀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태권도 관련 기관이나 인사의 외교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태권도 품새 경기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품새 종목에 대한 가치 변화와 태권도 기관들의 역할 및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살펴본 학문적 실천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인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태권도 품새 지도자와 선수, 행정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을 적용하여 올림픽 중목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석승(2014. 10. 30.). “이번엔 품새시합에서” 지긋지긋한 태권도 승부조작. 중앙일보.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s://news.joins.com/article/16273341>.
-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2020. 02. 19.). 국기원 품단 등록 및 응심자 현황. 2020년 1월 30일 발췌. <http://www.kukkiwon.or.kr/front/kor/information/report.action?cmd=View&seq=218&pageNum=1&searchKey=1&searchVal>.
- 김기홍(2009). 태권도 품새 경연의 전개와 전제원칙. **한국체육철학회지**, 17(1), 129-143.
- 김민선, 김영환(2010). 한국 스포츠외교 인재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3), 155-167.
- 김범식, 곽택용(2011). 태권도 해외 시범을 통한 국제개발 외교성과 사례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0(4), 33-42.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3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운용(2012. 08. 27.). 런던올림픽 이후 과제는. 중앙일보.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s://news.joins.com/article/9150241>.
- 김현수, 김동규(2013). 올림픽중목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사회철학적 쟁점. **한국체육철학회지**, 21(4), 141-162.
- 박인준, 김현민, 마효예, 조성균(2019). 태권도 경기 품새의 사회현상 규명을 위한 질적연구. **무예연구**, 13(1), 53-81.
- 백옥현(2006). **면접법**. 서울: 교육과학사.
- 손현규(2016. 08. 22.). “점수 앞서는데 코치가 기권” 태권도 승부조작 분통. 연합뉴스.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71800.
- 안진영, 안근아(2016). 하계유니버시아드 태권도 품새 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4(1), 79-88.
- 안진영, 안근아(2017). 대학 태권도 품새 선수의 운동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 지, 15(4), 627-635.
- 이송환, 박종범(2007). 태권도 품새 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품새 지도자와 선수의 심판관정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831-841.
- 이수환(2008).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존속을 위한 겨루기 경기규칙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승진, 전정우(2017). 태권도 자유품새 도입에 따른 선수와 지도자의 품새대회 인식 및 발전 방향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8(4), 357-377.
- 이승철(2015. 09. 15.). 태권도 또 편파판정 의혹, 멀고 먼 정정당당. KBS NEWS.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8331&ref=A>.
- 이용균(2018. 08. 20.). 칼군무 품새가 날려버린 ‘지루한 태권도’ 오명. 스포츠경향.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s://sports.v.daum.net/v/20180820133156236?f=m>.
- 이용주, 최공집, 전민우(2016). 태권도 품새 경기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3-32.
- 이원만(2018. 08. 20.). 논란의 태권도 품새, 대중성 증가 의미 크다. 스포츠조선.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747.html
- 이재봉(2018).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경기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6(3), 737-745.
- 임석원(2017).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평등. *철학탐구*, 46, 201-231.
- 임석원, 조문기(2016). 스포츠에서의 승리와 경기의 불공정성.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5, 37-43.
- 정국현, 김두한, 김하영(2014).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전략적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977-990.
- 정병기(2019). 아시아 태권도 수련생들의 품새 경기 인식에 따른 ATU 새품새 경기의 발전적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21(1), 35-42.
- 정용원(2018). 올림픽 정식종목화를 대비한 품새 경기규칙의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정용원, 이재봉(2019). 올림픽 정식종목화를 대비한 품새 경기규칙의 개선방안.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1), 47-71.
- 정재환, 이재환, 김순정(2014). 태권도 품새 경기의 운영요인에 따른 선수와 지도자의 만족도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4), 115-123.
- 정재환, 박찬우(2016). 태권도 품새의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93-102.
- 조현용(2018. 08. 20.). “K팝 보는 듯” ‘지루한 태권도’의 희망되나. MBC NEWS.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72232_22663.html.
- 최광근, 장권(2016). 태권도 경기의 올림픽 진출 배경과 역사적 함의. *한국체육사학회*, 21(4), 13-28.

최대열(2018. 08. 20.). “韓 IOC위원 늘리자” 논의 불거지는데..인물난에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2019년 12월 1일 발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0215301575570>.

Dey, I. (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London: Routledge.

Goetz, J., & Lecompte, M.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Y: Academic Pres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6th ed)*. CA: Sage.

Exploring the Poomsae Competition to Adopt the Official Event of the Olympic Games

Yun, Soo-Han (Hanya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Kim, Yong-E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rinsic value and limitations of the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 which was adopted as the official game of the Jakarta-Palembang Asian Games in 2018, and seek ways to globalize the adoption of the Olympic Games. For this, the case study,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applied to examine in-depth content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subject actors in the Taekwondo Poomsae competition. Six research participant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Taekwondo Poomsae event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 was repeated from August to December 2018.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Taekwondo Poomsae stocks was recognized as positive after the Asian Games, and the competition was strengthened by distinguishing them from the competition between Wushu and Karate. Second,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Poomsae economy, Taekwondo-related organizations said that unity of the evaluation methods and regulations of the referees was required based on cooperation through organic relations. Thir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referee's capacity, adopting the national sports competition, and diplomatic ability to adopt the official Olympic sports.

Keywords: taekwondo, poomsae, new poomsae, olympic games, official event